

# '아시아 외교 정상화' 시험대

## ■아베, 한·중·일 연쇄회담 시동

### 야스쿠니 참배 '애매전략'·역사인식 걸림돌 北 핵실험 선언 따라 북핵조율 의제 급부상



'아베 외교'가 시작됐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취임 후 첫 방문지로 중국과 한국을 선택, 8~9일 연쇄 정상회담을 갖고 전임 고이즈미(小泉) 내각의 아시아 실패를 '바로 세우기'에 착수했다.

하지만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에 관한 아베 총리의 모호한 입장이 여전히 외교정상화의 걸림돌로 잠복한 가운데 그는 연쇄 정상회담에서 참배 포기의 약속이 아닌 '이해'를 요구할 방침이어서 관계정상화는 한계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첫 방문지로 한·중 선택=전후 일본 총리 가운데 취임 후 첫 방문지로 중국

을 선택하기는 아베 총리가 처음이다. 그간에는 미국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이 4명, 러시아가 2명이었다.

집권 자민당 총재선거 과정에서 아베 총리는 전임자인 고이즈미 총리에 이어 얼마 동맹을 일본 외교의 기둥이라고 거듭 강조하거나 중국을 견제하면서 인도 등과의 외교강화를 주장해왔기 때문에 첫 방문지로 한·중을 선택할 것이라는 견해는 소수였다.

하지만 그는 무너진 아시아외교를 바로 세우려는 여론의 점증하는 압박과 이달 하순의 보궐선거 및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 등 여야의 첨예한 대결국면이

예상되는 자국 내 정치일정을 고려, 특 점을 올리기를 위한 방책으로 한중 방문을 선택한 것으로 관측된다.

◇아베 "야스쿠니참배 말하지 않겠다" 설명=아베 총리는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나 정상회담에서 "(야스쿠니 참배가) 외교문제화 한다며 (참배 여부는) 말하지 않겠다"는 나의 마음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즉 참배 여부를 밝히지 않는 '모호성 전략'을 앞으로도 고수할 계획이며 이를 한중 정상에 분명히 밝히겠다는 것이 셈이다.

일본 언론은 후진타오(胡锦涛) 국가 주석이 회담에서 야스쿠니 문제에 언급

은 하지만 "한마디 두마디만 할 뿐 따지는 양을 방침"이라며 아베 총리의 태도가 중국측에 의해 수용될 것처럼 전하고 있다.

도쿄신문은 아베 총리의 '애매 전략'에 한중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여부가 서로의 신뢰관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피할 수 없는 관문이 될 것이라며 '아베 외교'의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전했다.

◇북핵조율 '서울회담 재개' 초점=북한의 핵실험 계획 발표에 따라 북핵문제가 연쇄 정상회담의 테마로 급부상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 대화하겠다"며 연쇄 정상회담을 통한 남북문제 협력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은 자국 주도로 북핵실험의 포기를 촉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장성명을 채택한데 이어 한중 정상과 잇따라 대북대처를 협의함으로써 북한의 고립을 부각시킨다는 북한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총리부인 아키에 '한류스타' 만나

### 현충원 방문, 한국어로 인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부인인 아키에(昭恵,44) 여사가 퍼스트레이디로서 9일 한일 정상회담에 동행했을 때 국립현충원을 찾아 현화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지(日經)신문이 7일 전했다.

아키에 여사는 이날 낮 현충원을 방문, 현화하고 저녁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주최하는 만찬에 함께한다.

특히 정상회담이 열리는 시간에 열렬한 한류팬으로서 한류스타와 만나는 개인 일정도 검토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아키에 여사가 서울에서의 행사 중 한국어로 직접 인사할지 여부도 큰 관심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연합뉴스

## 현장과 시각

### 自治 쪼먹는 정당공천



정 후식  
정치부 차장

유난히 길었던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가장 분주했던 사람들은 아마도 10·25 재·보궐선거 예비후보 들일 것이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귀성객들이 물리는 버스터미널과 마을 행사장을 찾아 얼굴 알리기에 열심인 후보들의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하지만 유권자인 주민들은 썩 답답지 않은 표정이었다. 재·보선 대상지역 모두 당선자의 비리와 불법 행위로 인해 또 다시 선거를 치르게 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각 정당들은 이번 자치단체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도 주민들을 위해 헌신할 일꾼을 찾기 보다 내년 대선과 정계 개편을 앞두고 당리당략을 먼저 따진 흔적이 역력했다.

열린우리당은 화순군수와 신안군수 후보를 내지 않고 '무공천' 지역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유선호 전남도당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여차피 하나가 될 것"이라며 "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구질구질하게 민주당과 부딪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두 지역에 우리당 후보를 내지 않는 대신 강세를 보이는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정계개편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나름의 진단도 덧붙였다.

민주당은 진보 끝에 화순·신안군수 후보를 공천했으나 후유증이 만만치않다. 신안군수의 경우 공직특위가 내정된 후보의 '공무원 신분'을 문제삼아 철회하는 대신 뇌물 수수로 구속된 전 군수의 아들을 공천해 탈락자들의 탈당사태를 불러왔다. 일부 지역당원들은 화순군수 후보에 대해서도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재심을 요구하는 등 반발해왔다. 최인기 전남도당위원장은 "공천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하지만 후보가 확정된 만큼 선거에서 승리해 향후 정계 개편 과정에서 호남이 힘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역시 3곳에 모두 후보를 냈으나 일부 후보가 불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쪼속 공천'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지지기반이 취약한 전남지역에서 한나라당이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낸 것은 이례적이지만 대선을 염두에 둔 '징발'의 성격이 짙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탄생한 후보들은 선거전에서도 자치단체의 살림이나 미래 비전보다는 정계 개편 및 대선과 관련한 각 당의 주장을 화두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학계에선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연속화와 특정 당의 독주가 두드러진 5·31 지방선거를 최악의 후진적 선거로 평가한다.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초단체장 등의 정당공천 제 폐지를 더 이상 미루서는 안된다.

/who@kwangju.co.kr

## 반기문 사무총장 후보 유엔 안보리 단독 추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9일 밤(뉴욕시간 9일 오전) 반기문의 외교 통상부 장관을 차기 유엔 사무총장 단일후보로 총회에 추천한다.

안보리는 4차 예비투표 이후 반 장관과 경합했던 후보들이 모두 사퇴함에 따라 본 투표를 통해 반 장관을 만장일치로 코피 아난 사무총장의 뒤를 이을 단일후보로 결정할 것이 확실시된다.

4차 예비투표 직후 인도의 사시 타루르 유엔 사무차장의 사퇴를 시작으로 모든 후보들이 사퇴의사를 밝힌데다 선거과정에서 후보를 낼 수 있는 나라로 지목됐던 싱가포르마저 반 장관 지지를 공식선언함에 따라 본 투표에서 반 장관에게 영향을 줄 변수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다.

안보리 이사국들 역시 4차 예비투표 직후 경쟁적으로 반 장관 지지를 표명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앞서 반 장관은 3차 예비투표까지 압도적인 표 차이로 선두를 고수한 데 이어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의 투표씩갈을 구분해 실시한 4차 예비투표에서도 상임이사국의 반대 없이 14표의 찬성표를 얻어 사실상 차기 사무총장으로 내정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총회는 안보리가 반 장관을 단일후보로 추천하면 추진절차를 위한 회의 일정을 결정하게 된다.

총회는 회원국의 요구가 있으면 투표를 통해 차기 총장을 결정할 수도 있으나 이제까지 관례상 투표없이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태이다.

반 장관은 안보리의 단일후보 추천과 총회 추진과정을 끝내면 차기 사무총장 내정자 신분으로 인수인계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연합뉴스



유엔 사무총장에 내정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지난 6일 충북 음성군 원남면 상당1리의 광주 반씨 사당에서 고유제를 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 해외 한인 수형자 국내서 형기 마친다

### 9명 첫 국내이송 심사

해외에 수감 중인 한인 수형자가 남은 형기를 고국에서 마치게 되는 사례가 사상 처음으로 연내에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8일 "수형자 이송 심사위원회를 13일 열어 우리나라로 이송을 원하는 해외 수감 한국인 9명과 본국으로 귀국해 잔여 형기를 마치려는 국내 수감 외국인 6명 가운데 이송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해외에서 우리나라 교정기관으로 이송 신청을 한 한국인은 이날 현재 미국에 수감 중인 수형자가 2명, 일본에 수감 중인 수형자가 7명이며 신청자 수는 더 늘 수 있다.

/연합뉴스

해당 수형자는 국내 관할 검찰청의 개략적인 조사를 거치고 해외 주재 영사의 설문 조사와 해당 사법기관의 이송 절차에도 응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 입국까지 길게는 수개월 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되지만 연말까지는 귀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작년에 미국과 일본, 유럽 등 59개국에 체결한 유럽수형자이송협약에 가입함으로써 모든 회원국과 직접 조약을 체결한 효과가 있다.

법무부가 집계한 재외국민 수감 현황에 따르면 작년 8월 기준으로 일본에 1천 510명, 미국에 340명, 중국에 134명 등 모두 2천여명의 한인이 외국에 수감돼 있다.

/연합뉴스

## 서울대·고려대·KAIST 英誌 선정 200대 대학 랭크

서울대와 고려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국내 3개 대학이 영국 더타임스가 발표한 세계 200대 대학에 올랐다.

8일 영국 주간 '더타임스' 하이어 에듀케이션 서플먼트'에 따르면 서울대는 지난해 93위에 이어 올해는 30계단 뛰어 오른 63위에 올랐다. 고려대도 지난해 184위에서 150위로 34계단 상승했으나 KAIST는 지난해 143위에서 올해는 198위로 55계

단 하락했다.

최고의 대학으로는 미국 하버드 대학이 선정됐으며 영국의 케임브리지대와 옥스퍼드대가 2, 3위를 차지했다. 미국의 MIT와 예일대가 공동 4위를 기록했다.

아시아 지역 대학으로는 중국의 베이징대가 14위로 미국과 영국 대학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으며 도쿄대는 5계단 낮은 19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매일밤 8시부터 쏠쏠쏠 애들은기라!!**

**김범동** 10월 11, 12일

**편승엄** 10월 16, 17일

**민해경** 10월 19, 20일

**김수희** 10월 26, 27일

**광주 상무 나이트** (상무지구 롯데마트 옆)

**선명인내**

이곳에는 다양한 뉴스와 정보들이 실려 있습니다. 주요 기사와 칼럼을 만나보세요.